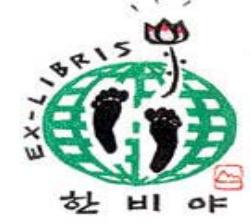


#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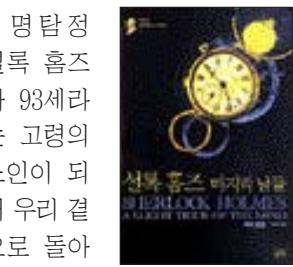
Books

## 문인들 개성 담긴 장서표 “딱 맞네”



노인 되어 돌아온

명탐정 셜록 홈즈



명탐정 셜록 홈즈가 93세라는 고령의 노인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이번에 출간 된 '셜록홈즈 마지막 날들'은 셜록 홈즈 탄생 120주년을 맞아 명탐정 홈즈와 그 창조자 코난 도일을 기리기 위해 펴낸 미스테리 스릴러 작가들의 시리즈 첫 작품.

소설 속 홈즈는 이미 노인으로 육체적 능력과 기억력은 극심하게 쇠퇴했지만, 평소 오랜 친구의 권유에 따라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건을 정리하는 글을 쓰기 시작한다.

소설을 쓴 미국의 미치 컬린은 어린 시절부터 홈즈에게 빠져 홈즈처럼 귀엽게 모자를 쓰고 파이프를 물고 다니면서 스스로를 '셜록키언'이라 불렀던 작가다. <황금가지·9천원>

### 인연을 새기다 남궁 산 지음

소장하고 있는 책의 소유자를 알리는 표시인 '장서표(藏書票)'는 우리에게 낯설지만 서양에서는 하나의 예술 장르로 각광 받고 있다. 10cm 안팎의 작은 표시에는 책 주인에 대한 짐수가 담겨 있어 장서표는 그 사람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하다.

관화 작가 남궁 산이 펴낸 '인연을 새기다'는 저자가 자신과 오랜 기간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의 장서표를 직접 제작하며 느낀 것들을 소박한 문체로 풀어쓴 책이다.

아무래도 책과 가까이 하는 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보니 문학가들이 주로 등장하지만 환경운동가 최열, 영화인 김명곤, 미행사 주지금강 슈님 등 다양한 이들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문자와 이미지가 결합된 '장서표'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직업, 취미, 세계관 등을 압축한 것이므로 결국 '사람'으로 귀결되고, 장서표 이야기는 결국 사람 이야기"라고 말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 문인들의 특징을 꼭 집어내 만든 장서표를 접하면 "딱 맞네"라는 생각이 절로 떠오른다. '문단의 마담발'로 통하는 저자의 솔자리와, 모임과 여행길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덕이다.

함께 자전거 여행을 하며 그의 뒷모습에서 가을 넘버를 맡은 저자는 '음풍농월하며 사는 게 꿈'인 소설가 김훈의 장서표에는 '자전거'를 그려 넣었다.

술을 좋아하고 판소리부터 대중가요를 넘어 그리스, 베트남, 몽골 노래까지 아우르는 작가

▲장서표(藏書票)=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책의 소유자를 알리는 표시로 책의 표지나 뒷면 또는 안갈장에 붙인다. 주로 판화로 제작되며 장서표에는 국제 공용 표식인 라틴어 'EXLIBRIS'와 장서가 자신의 이름을 새긴다. 'EX'는 영어의 'from', 'LIBRIS'는 'books, library'의 뜻이다. 영어권에서는 'Book Plate'라고 쓴다.

이윤기에게서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半人半獸) 켄타우로스 족의 현자로 헤라를 레스 등 영웅을 가르친 케이론을 떠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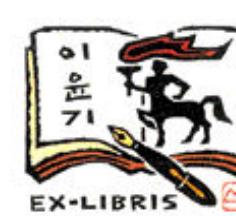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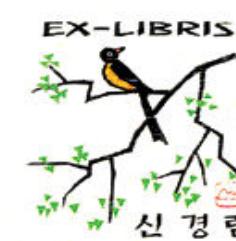
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낙타를 통해야 한다. 그 사막에 낙타가 없으면 얼마나 황폐할까?'라고 노래하는 정호승의 장서표에는 책을 등에 지고 떠나는 낙타가 새겨져고, 시·고래를 기다리며 풍물에 많은 사람의 기다리고 있는 고래는 우리 마음에 있음을 알려준 시인 안도현에게는 '고래'를 선물했다.

그 밖에 음악에 맞춰 통통 뛰고 있는 한비야의 작은 발을 뚫어지게 바라본 기억을 갖고 있는 저자는 작은 발로 세계를 누비는 그녀의 이미지를 장서표에 새겼다.

또 'simple life, high thinking'을 삶의 지표로 삼고, '전환시대의 논리' 등의 명제를 통해 후학들에게 역사의 새싹을 들게 해준 리영희의 장서표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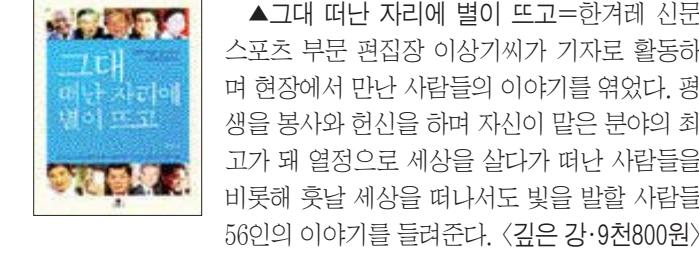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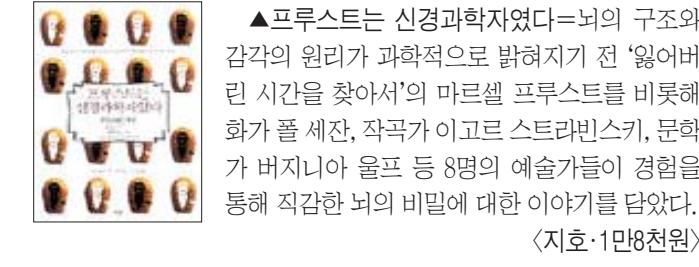
책을 읽고 나면 책장에 가득 꽂혀 있는 나의 책에는 어떤 장서표를 붙일까 한번쯤 생각하게 되는 것도 책이 주는 즐거움 중 하나다.

<오픈하우스·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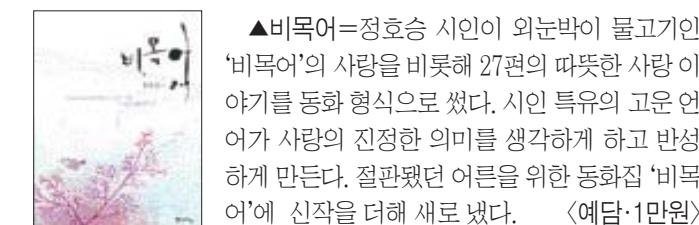
▲빌리 홀리데이-세상에서 가장 슬픈 목소리=전설적 여성 보컬리스트인 빌리 홀리데이 (Holiday·1915~1959)의 전기가 '현대 예술의 거장' 시리즈 제 15권으로 국내에 번역·출간됐다. 저자는 철저한 자료 고증과 1970년대부터 빌리 홀리데이의 지인들에게 행해진 인터뷰 녹음을 바탕으로 글을 썼다. <율문문화사·3만2천원>

▲인과 외교=일본 마이니치 신문 외신기자로 일한 저자가 외인과 외교의 재미있는 뒷 이야기를 소개한다. 각국 정상들이 모인 외인을 포함한 만찬 테이블에는 정치적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각국의 정상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외인을 맴들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지상사·9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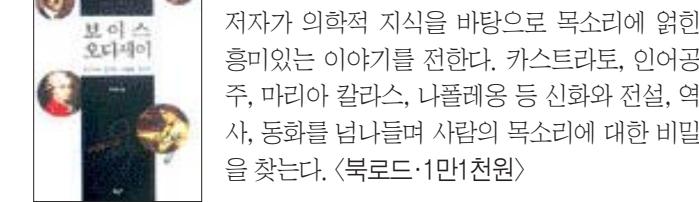
▲그대 떠난 자리에 별이 뜨고=한겨레 신문 스포츠 부문 편집장 이상기씨가 기자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었다. 평생을 봉사와 헌신을 하며 자신이 맡은 분야의 최고가 돼 열정으로 세상을 살다가 떠난 사람들을 비롯해 훗날 세상을 떠나서도 빛을 발할 사람들 56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은 강·9천800원>

▲르 코르뷔지에 VS 안도 타다오=멋진 집보다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집,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집을 짓기 위해 노력한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와 안도 타다오의 견디세계를 조명했다. 두 사람의 작품을 담은 사진도 함께 실려 있어 현장감도 느낄 수 있다. <슴비소리·1만2천원>



▲비록 어=정호승 시인이 외눈박이 물고기인 '비록 어'의 사랑을 비롯해 27편의 따뜻한 사랑이 아기를 동화 형식으로 썼다. 시인 특유의 고운 언어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반성하게 만든다. 절판됐던 어른을 위한 동화집 '비록 어'에 신작을 더해 새로 냈다. <예담·1만원>

▲사회와 반정의 시대=국가 체제의 완성을 이룬 성종, 그에 대한 반발과 균열을 보인 연산군, 다시 왕권을 둘러싼 체제 정비를 시도한 중종까지 75년간은 조선 왕조 중 최초로 사회와 반정이 일어났던 권력투쟁이 심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세 왕과 신하의 투쟁과정을 조명한다. <역사비평사·1만4천500원>



▲해피어-하버드대 행복학 강의=하버드대학에 행복학 열풍을 불러일으킨 인기 강좌를 엮어 책으로 출판했다. 행복이 긍정적인 가치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행복을 위한 일곱 가지 명상과 행복 6계명을 전한다. <위즈덤하우스·1만3천원>

## 인간의 이타적인 본성과 욕망의 메커니즘

### 왜 사랑에 빠지면 착해지는가 토르 뇌레트라네르스 지음



왜 사랑하는 사람 앞에만 서면 착해질까? 덴마크 과학자인 토르 뇌레트라네르스의 '왜 사랑에 빠지면 착해지는가'는 '사랑'과 '관용'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독자의 이해를 높이 위해 책머리에 '최후통첩 게임'을 소개한다. 정해진 돈을 두 명이 얼마나 일찍 나눠가질지 상대에게 재인하고 받아들이는 게임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심만을 쟁여 턱이 높은 금액을 상대에게 주는 '무임승차자'에게 부정적 감정을 품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상대를 처벌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말이다. 공동체를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를 어길 경우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타인에게 관용과 선행을 무의식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를 저자는 진화론에서 찾고 있다. 과거와 현재,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배우자를 선택해 대를 이으려는 행위는 동일하다. 하지만 과거에는 사냥을 잘하고 생존력이 강한 배우자

를 선호했다면, 현대에는 공동체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을 우선 순위에 둔다.

나와 내 혈족이 포함된 인류가 함께 번성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투쟁만이 가능한 사회보다는 관용과 협동이 넘치는 공동체가 더 유리하다. 암울한 세상에 후손을 남기기보다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친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성은 이처럼 배우자 선택의 우선 순위로 관용과 선행을 요구함에 따라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착해지는 것'이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이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동일하다. 먹이를 잡은 새가 자신보다 약한 다른 새에게 먼저 먹이를 권하는 행위는, 좀 더 나은 공동체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사람들이 태인을 드는 '이타주의'의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이타주의로 진화하는 인간을 관용의 뜻이 담긴 '호모 제네로수스 (Homo generosus)'라 이를 불렀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인간이 선물을 주고 받는 이유' '남자가 간호사·승무원 등 복무를 입은 여성에게 성적 환상을 품는 성선택 메커니즘' '남녀가 공연장을 자주 찾는 까닭' 등도 풀이했다.

<웅진 지식하우스·1만3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대인동심일부동산

☎ (011) 410-5210, 5210 원 011-602-2532  
광주시 은현동 산본동 101, 대인동 상권서관나루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뿐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 지역 상가 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 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층 정도에 점포가 여러 칸인 상가를 대 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 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보부동산컨설팅

☎ (011) 261-8949 원 011-602-2233

(산수동 53-11 무임터문구 삼거리)

도시 대매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

내시민 은행 관리자인 대매 15,500㎡ 강원로 앞을 포함한 주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대매 15,500㎡